

조상에게도 이런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유전적 소인이 있었음을 공식 확인한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 “지카 바이러스, 국내 감염자 정액서 2개월 지나서도 검출”

지카 바이러스가 한국인 감염 환자의 정액에서 발병 두 달이 지나서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엔 일부 국가에서 지카 바이러스 환자 발생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성관계로 인한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김남중 교수팀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국인 14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RT-PCR)를 한 결과, 이 중 한 명의 정액에서 감염 진단을 받은 후 9주(63일)가 지난 뒤에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카 바이러스가 정액에서 분리 검출된 것은 2013년 12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타히티 남성이 처음이었다. 국내에서도 감염 7일째에 정액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산 채로 배양된 사례가 2016년 6월 보고됐다. 스페인에서는 53세 남성이 발병 69일이 지난 후 살아있는 지카 바이러스가 정액에서 배출됐다는 학계 보고가 있다. 하지만 지카 바이러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정액에 섞여 나오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번 사례는 PCR 검사를 통해 정액 속에 지카 바이러스의 흔적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실제 이 바이러스를 배양해 살아 있는지를 보는 검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PCR 양성이라는 결과가 반드시 살아서 증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PCR 검사로는 발병 후 188일 이후에도 정액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보고가 해외에서 나온 적이 있다.

국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모두 감염 지역으로의 여행력이 있었다. 10명은 동남아시아, 4명은 남미에서 각각 지카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혈액, 소변, 타액, 정액 등의 유전자검사서서 감염 첫 주에 바이러스 양성률이 가장 높았던 검체는 소변이었다. 반면 가장 오랫동안 바이러스가 확인된 검체는 정액이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가벼운 발진으로 14명 중 13명에게서 확인됐다. 하지만 임신부 감염이나 신경학적 이상 등의 중증 사례는 없었다.

오명돈 교수는 “정액으로 배출되는 지카 바이러스의 양은 매우 많아서 발병한 지 2주째에는 정액 내 바이러스 농도가 혈액이나 소변의 바이러스 농도보다 10만 배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병 후 41일째에 성관계를 했는데 지카 바이러스가 파트너에게 전파됐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발생 국가를 다녀온 후에는 6개월 동안 임신을 미루거나 성관계 때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문 학

### ■ 개요

2017년 한국문학은 ‘82년생 김지영’으로 대표되는 페미니즘 돌풍과 젊은 여성 작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016년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작가 한강은 2017년에도 다른 작품들이 해외에 소개되며 이탈리아에서 문학상을 받는 등 이름을 떨쳤다.

시대와 불화한 ‘즐거운 사람’의 마광수, 깊이 있는 작품 세계를 구축한 중견 소설가 정미경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 ■ 사회적 반향 일으킨 소설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여성들의 열렬한 공감과 지지를 받으며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 문제를 공론화했다. 작가는 결혼과 육아로 자신의 일을 그만둬야 했던 자전적 경험에 더해 우리 사회의 남녀 성차별을 드러내는 각종 통계 자료와 언론 기사를 녹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30대 중반 여성이 겪는 일반적인 고통을 세밀하게 그려냈다.

이 책은 2016년 10월 출간됐으나, 독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다가 2017년 5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에게 선물하면서 크게 주목받았다. 이후 ‘김지영’은 사회 각계에서 성차별이나 경력단절여성 문제를 얘기할 때 거론되는 여성문제의 아이콘이 됐다. 국회에서는 워킹맘의 육아뿐만 아니라 가사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명 ‘김지영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82년생 김지영’은 연말 출판계 결산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문학 작품으로는 이례적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작가·출판인들이 뽑은 ‘2017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소설 외에도 여성혐오와 여성이 사회에서 당하는 거시적·미시적 폭력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소설들이 잇따라 출간돼 호평을 받았다.

2016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여성혐오 범죄들과 문단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자성이 한국문학의 여성문제 발화를 추동했다. 이전 몇 년간 취업난에 짓눌린 청년 백수의 절망이 차지하던 자리를 여성문제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대신하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젊은 여성작가들이 이런 흐름을 이끌었다.

‘82년생 김지영’이 한국사회에 현미경을 들이대며 성차별과 여성혐오 현상을 세밀하게 관찰했다면, 박민정의 소설집 ‘아내들의 학교’는 여성혐오의 뿌리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수록작 중 문지문학상을 수상한 ‘행복의 과학’은 민족주의를 비롯한 배제의 이데올로기들과 여성혐오의 결탁을 그렸다.

강화길은 장편소설 ‘다른 사람’에서 여성혐오와 데이트 폭력 등의 문제를 다뤘다. 한겨레문학상을 받은 이 작품은 “최근 급부상하는 영페미니스트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 11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 다산카페에서 페미니즘 소설 ‘현남 오빠에게’ 기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17년 11월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건 소설집 '현남 오빠에게'가 출간됐다. 이 소설집에는 조남주, 김이설, 최은영, 구병모 등 여성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조남주 작가가 쓴 표제작 '현남 오빠에게'는 이 시대의 평범한 젊은 여성들이 남자친구에게서 일상적으로 당하는 언어·심리적인 폭력을 그렸다.

이 같은 페미니즘 문학의 부상에 더해 스타 작가 김애란이 오랜만에 낸 소설집 '바깥은 여름'이 인기를 끌면서 2017년 한국 문단은 여성 작가들이 주도했다.

한국문단의 중심에 있는 전통과 권위의 출판사 창비는 그동안의 표절 사태와 문단 권력 문제를 자성하고 한국문학의 새로운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젊은 감각의 문예지 '문학3'을 창간했다.

문학3은 종이잡지 이름이자 인터넷 홈페이지 '문학웹'(www.munhak3.com), 현장 행사 중심의 '문학몹'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문학 플랫폼이다. 문학몹에서는 독자가 참여하는 편집회의를 상설화했으며, 첫 번째로 '#문단\_내\_성폭력, 문학과 여성들'을 주제로 한 편집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 ■ 맨부커 수상 한강 비롯 이승우, 배수아 등 해외서 주목받아

소설가이자 시인인 한강은 2016년 연작소설 '채식주의자'로 영국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받은 데 이어 광주 5·18을 그린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로 2017년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수상했다. 2011년작 '희랍어 시간'은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맨부커상 수상을 기폭제로 한강의 작품들이 잇따라 해외에서 번역 출간되면서 작가의 문학세계 전반이 조명됐다.

소설가 배수아와 한유주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펜 월드 보이스 축제(PEN World Voices Festival)'에 참가해 이목을 끌었다. 펜 월드 보이스 축제는 미국 펜(PEN) 클럽과 인도계 영국 작가 살만 루슈디가 9·11 테러 이후 세계문학계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만든 문학축제다. '젠더와 힘'을 주제로 열린 이 축제에 한유주는 '여성 주도적 소설' 세션에, 배수아는 '자전적 소설' 세션에 각각 참가했다.

배수아는 2016년 '에세이스트의 책상'에 이어 2017년 1월 '서울의 낮은 언덕들'을, 한유주는 2017년 3월 '불가능한 동화'를 미국에서 출간했다.

시인 김이듬의 시집 '명랑하라 팜 파탈'(영문 제목 Cheer Up Femme Fatale)은 미국 번역문학 전문 웹사이트 '쓰리 퍼센트'(Three Percent)의 '최우수 번역 도서상'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 ■ 소설가 마광수, 정미경 별세

'즐거운 사라'로 자유로운 성(性) 관념을 펼쳤다가 세상의 벽에 부딪혀 곡절을 겪은 마광수 연세대 교수가 2017년 9월 5일 향년 66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시인 윤동주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1977년 등단해 28세에 대학교수로 임용돼 천재로 불렸다. 그러나 1991년 소설 '즐거운 사라'를 펴내고 이듬해 10월 음란물 제작·반포 혐의

로 구속되면서 예술과 외설의 경계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3년간 재판 끝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연세대에서 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 2016년 정년퇴임을 한 뒤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중견 소설가 정미경도 2017년 1월 18일 향년 57세로 별세했다.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폭설'이 당선돼 등단했으며 2001년 계간 '세계의 문학'에 '비소 연인'을 발표하며 소설가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부르주아 계급의 허위의식을 주요 소재로 삼는 2000년대 문단의 새 경향을 주도했다는 평을 받았다.

# 미술

## ■ 개요

2017년 국내 미술계도 다사다난했다. 한국과 중국의 고고도 미술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과 한국을 대표하는 사립 미술관인 삼성미술관 리움의 개점휴업이 큰 악재로 작용했다.

단색화를 대표하는 김환기 작품이 국내 미술품 최고가 기록을 잇달아 경신하는 등 미술시장에서 기록이 쏟아졌다. 단색화와 함께 주요 사조로 꼽히는 민중미술 작가들의 전시도 활발히 진행됐다.

## ■ 사드에 얼어붙은 한중 교류…삼성미술관 리움도 영업 중단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2016년 가을부터 본격화한 한중 갈등은 미술계에도 오랫동안 암운을 드리웠다.

2017년 상반기 국내 국공립 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전을 비롯해 여러 대형 전시가 무산됐다. 수교 25주년 기념전을 준비했던 한 인사는 "작년(2016년) 9월 각 미술관이 전시 개최 의향서를 중국 측에 보내고 관련 예산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중국 측이 어렵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이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사드 파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국내 인사들의 판단이다.

상하이 유즈미술관이 2017년 9월 계획했던 단색화 전시도 무기한 연기됐다. 유즈미술관을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출신 사업가 부디 텍이 2016년 9월 방한해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발표했던 전시 계획이었다. 상하이 현대미술관(MOCA)에서 추진하던 큐레이터 교류 프로그램을 비롯해 양국 미술계의 인사 교류도 중단됐다.

국내 화랑과 갤러리들이 중국에서의 부진 원인을 사드로 몰아갔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단색화를 위시해 한국 미술을 향한 관심이 커지던 시기에 사드 갈등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국 문화예술 특구인 웨스트브드에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가 진출하는 등 간간히 반가운 소식도 들렸다. 11월 초에는 중국의 우수 사립미술관 관장·부관장·큐레이터들이 서울의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가 마련